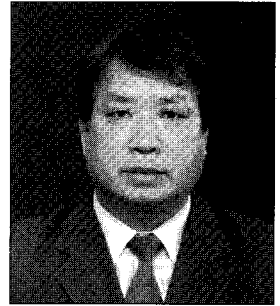


韓國의 東北亞 標準協力 및 Pallet 標準化 推進方向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
서기관 손병현

본 내용은 2003년 3월 3일~8일 중국 북경, 상해에서 열린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편집자주—

1. 인사말씀

존경하는 중국, 일본, 한국의 정부 및 민간Pallet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중·일 세 나라의 Pallet관계 주요인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린 「아시아 Pallet 표준화 추진 세미나」에서 '한국의 동북아 표준협력 및 Pallet 표준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소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히 중국 및 일본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1世紀 國際經濟 環境의 變化

지금 세계경제는 世界化의 進展으로 國境의 개념이 없어지고 세계를 무대로 한 無限競爭이 이미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의 한편으로는 NAFTA·EU와 같은 경제블럭의 형성, 지역간 자유貿易의 확대 등 域內國家間 協力を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 위한 地域化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의 어느 企業도 혼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으며, 기업간 서로 다른 核心力量까지도 共有하는 戰略的 提携를 통한 Network化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21世紀의 世界化, 地域化, 情報知識化 그리고 Network化 시대에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한·중·일 세나라가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同乘하여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보다 큰 共同의 發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3. 東北亞 經濟協力の 方向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경제는 치열한 國際競爭속에서도 地域別로 統合되어 NAFTA, EU, 東Asia 3極體制 위에서 世界化가 진전되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규모면에서 이미 미국 GDP의 60%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도체·전자·철강·석유화학 등 主要基幹産業에 있어서는 世界 生産基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港灣으로 손꼽히는 상하이, 도쿄, 부산, 싱가포르, 홍콩이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 東Asia가 國際物流의 中心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어 東Asia의 FTA 체결 등 經濟協力を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일 간에 FTA와 관련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칭화(淸華)대학 후안강(胡安綱) 교수도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은 전세계 인구의 24%, 總輸入의 16.7%, 總輸出의 13%를 점하고 있어 이들 국가간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정될 경우 무역과 투자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자유로운 자원이동이 가능해져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연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중국 海南島에서 韓·中·日 3국의 총리 등 아시아의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아오(博鳌)포럼이 개최되고 域內 經濟協力 확대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역내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일 3국간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컨센서스를 이루고 표준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3국 정부의 지원하에 민간이 주도가 되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東北亞 標準協力の 現況과 發展方向

주지하시는 대로, 21세기는 기술기반인 표준이 개별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까지도 결정짓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표준을 창출하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는 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준’과 ‘적합성 평가’가 국제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면서 표준협력에 관하여도 ISO/IEC 등에서 다자간 논의가 진전되는 한편 구주의 CEN이나 미주의 COPANT와 같은 지역블럭 차원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韓·中·日간에도 무역·투자 등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3국간 표준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3국간에는 韓中, 韓日, 中日 양자간 정부실무레벨에서 표준협력 논의가 있어 왔으나, 민간의 참여 미흡, 기술적 문제에의 국한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국제표준의 제정·개정에 있어서는 세 나라의 활동결과를 모두 합쳐도 EU의 한 개 국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3국의 표준화 활동이 동북아지역의 경제활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무역확대와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2002. 11. 28 서울에서 산업자원부 주최로 ‘한·중·일 민관합동 표준협력 회의’와 ‘동북아 표준협력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서울회의에는 중국의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중국표준화협회 그리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일본 규격협회, 일본적합성인정협회 등에서 고위관계자가 참가하여 동북아 표준협력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3국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5. 東北亞 Standards Dialogue(標準協力對話體) 創設

3국 민관합동회의에서 한국측은, 동북아지역 국가간에 공식적인 표준협력대화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 Standards Dialogue’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측은 공동제안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일본측에서도 한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따라 3국은 동북아 Standards Dialogue 구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하여 ‘제2차 한·중·일 민관합동 표준협력회의’를 금년에는 北京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제3차 회의를 2004년에 東京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한·중·일 세나라의 표준관련 정부와 민간대표가 이루어 낸 최초의 합의는 동북아 표준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對話의場'을 여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Standards Dialogue를 어떤 기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3국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국측으로서는 3국간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표준협력 공동관심사항을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3국의 정부 및 민간의 고위급으로 구성된 합동회의에 부의하여 종합·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3국의 노력으로 동북아 Standards Dialogue가 창설되면 아시아 각국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구미지역의 표준협력체와도 경쟁 및 협력함으로써 한·중·일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표준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韓國의 東北亞 標準協力 推進方案

한국정부는 동북아 표준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한국의 정부·산·학·연 관계기관들이 중국 및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 표준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Standards Dialogue 창설에 필요한 Net Work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ISO/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표준 제정·개정 활동에 대비하여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표준(안)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외 국가와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상호인정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간표준기관이 주요 표준분야인 규격,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시스템 인정, 계량측측, 표준과학 및 학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 일본 관련기관과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표준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3국이 공동개발하는 등 장래 동북아 표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韓國의 主要 産業物流政策

한국정부는 낙후된 산업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기업물류의 아웃소싱 촉진하고 제3자의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물류공동화를 통해 공차운행 등 산업물류 전반의 비효율 제거해 나가면서 Pallet, 컨테이너 등 물류공동화의 첨경이 되는 물류설비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Pallet 등 물류설비 표준화에 필요한 표준물류설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Pallet, 포장용기, 컨베이어, 랙(Rack) 등 물류기본설비에 대한 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설비 활용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유통합리화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8. 韓·中·日 Pallet標準化 協力

특히 물류革新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T-11형 Pallet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國際 物流標準協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ISO에는 일본에서 제안한 T-11형 Pallet 표준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한일간의 공동협력으로 최종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회의때 ‘동북아 Standards Dialogue 창설’ 제안에 대해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준 것과 같이 ISO에서의 Pallet 표준화 심의과정에서도 중국측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물류비 절감과 물류업무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T-11형 Pallet를 기본으로 한 아시아지역 물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중·일 세나라가 Pallet분야에서 동북아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순환 개최하여 3국간 Pallet 표준화, 표준파레트의 공동사용을 위한 Pallet Pool 구축 그리고 Pallet 관련 관세장벽제거 등 협력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韓·中·日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및 대양주지역을 포함하는 물류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9. 마무리 인사

이와 같은 3국간 Pallet 및 물류표준관련 공통관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에 北京에서 개최될 ‘제2차 한·중·일 고위민관합동 표준협력회의’에서도 공동협력사업으로 제안되고 논의되어 가능하다면 종합·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Pallet 표준화와 관련하여 3국의 관계정부 및 민간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고, 이와같은 3국간의 논의와 공동협력으로 Standards Dialogue 창설 등을 통해 동북아 표준협력체제가 확고히 구축됨으로써 나아가서는 東北亞 域內 經濟協力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중국 및 일본의 참석인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